



속보: 2011년 11월 1일

## CUOMO 주지사,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 (AUTISM SPECTRUM DISORDER) 건강보험 혜택 확대 법안에 서명

### 새 법률 건강보험 공급자의 자폐증 장애 보상 요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건강보험 공급자들에게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 진단 및 치료비 보상 제공을 요구할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자폐증 장애가 있는 사랑하는 이의 치료와 연관된 고액의 의료비용을 감당하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 법으로, 건강보험 회사들은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 치료비 보상을 제공하도록 요구될 것입니다. 보상에는 다른 혜택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가입자 우선 부담금 (deductible), 기본 의료비 (co-pays), 및 공동보험 (coinsurance)의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 법안은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랑하는 이를 적절하게 돌보려고 애쓰는 수 천의 뉴욕인 가정들을 도울 것입니다. 자폐증은, 조기 검진과 치료가 필수적이며, 이 병이 있는 사람들의 더 밝은 미래가 재정적인 제약으로 인해 가려진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조기 치료 및 더 나은 결과를 보기 원하는 가족들에게 기회를 줄 것입니다. 저는 매우 필요한 이 법안을 후원해주신 Fuschillo 상원의원과 Morelle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주 법은 자폐증 장애 진단 및 치료가 보험 혜택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몇 보험 회사에서는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 제한된 보상을 하는 반면, 대부분은 의학적으로 필요해보이지 않는 치료는 보상해 주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본인부담금 (out-of-pocket)으로 지불해야 했으며 어느때는 연간 \$50,000 이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가정들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비를 낼 수 없으며, 자녀를 위한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의 효과적인 조기 치료를 중지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서명으로 인해, 뉴욕은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에 연관된 상태를 위한 보험 보상을 요구하는 29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다른 주에서는, 이 법안은 연간 서비스 비용에 제한을 둡니다. 법안은 법률 제정 날짜로부터 1년 뒤인 2012년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날짜 이후에 발급되거나 갱신된 보험 정책에 적용됩니다.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는 복잡하고 전반적인 발달둔뇌 상태로써, 종종 사회적 상호작용 문제, 의사소통 장애, 및 동일한 행동 반복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는 모든 인종 및 사회 집단에서 대략 110명의 아동 중 1명꼴로 나타나며, 연구에 따르면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에게 일어날 확률이 네 배 높습니다. 올바른 치료가 따른다면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의 조기 발견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뉴욕에만 19세 미만의 약 30,000명이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뉴욕주는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인들과 그 외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몇몇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 교육부 (State Education Department) 의 원조를 받는, 유아원 특수 교육 서비스 및 취학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서비스와 같은 건강 조기치료 프로그램부 (Department of Health's Early Intervention Program);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무실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이 제공하는 “Autism Platform”은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인들에게 특정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며 그 중 대부분은 개별 서비스 플랜과 결합되어 Medicaid에서 자금 조달 및 제공됩니다.

Dean G. Skelos 상원 다수당 대표인은, “주 전체에 수 천의 가정들은 자폐증이 있는 자녀나 어른에게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과 또는 그들의 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것 사이의 중요한 선택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자폐인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기로 입증된 도구에 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Fuschillo 상원의원과 McDonald 상원의원의 지도력에 감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와 협력해주신 주지사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Sheldon Silver 의회 대변인은,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에, 취약 아동과 어른의 더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도약하는 정부는 즉 바른 우선순위를 가진 정부입니다. 저는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로 고생하는 이들과 그들에게 가능한 최선의 치료를 위해 애쓰는 그들의 가족들을 지지해주는 주지사께 감사드리고, 또한, 제 동료 여러분들, Joe Morelle 의원에게, 그의 지도력과 오늘을 만들어 낸 지치지 않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Charles J. Fuschillo, Jr. 상원의원은, “오늘은 자폐인들에게 기쁜 날입니다. 몇 년간, 가정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이를 위한 치료 보상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이 새 법안은 자폐인들에게 매년 수 만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저는 자폐증이 적용되는 모든 뉴욕 가정의 삶에 극적인 향상을 가져올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Roy J. McDonald 상원의원은, “자폐증은 신속하게 퍼져 진단율이 놀라운 단계로 올라가는 유행병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지기 전에 더 악화되는 정신 건강 문제이며, 이 법안은 실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도울 것입니다. 저는 지도력과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하며, 이 제정을 후원해주신 제 상원 동료 여러분과 의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Joseph Morelle 의원은, “오늘 Cuomo 주지사의 서명으로, 가족들은 한 자녀를 위한 저렴한 의료와 또 다른 자녀를 위한 대학 교육비 사이에서 고민하며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뉴욕은 이 법안으로 인해 모든 주민을, 특히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고생하는 이들을 돌보는 주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지사께 그의 지도력과 이 문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 중요한 법안을 통과하게 된 것에 대해 입법부의 제 동료분들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Dr. Nirav Shah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위원은,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의 조기 진단은, 올바른 치료 프로그램이 따른다면, 환자의 더 나은 기능으로 이끈다는 것과, 장애인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더 안정적인 미래를 제공한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저는 뉴욕 전체의 가정들이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의 도전에 대응하도록 도울 이 법안을 제정하는 데 협력한 Cuomo 주지사와 우리 입법부에 감사하며 찬사를 보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Courtney Burke,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무실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위원은, “저는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 (Autism Spectrum Disorder: ASDs)의 조기 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가정들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조기 개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 법안의 서명과 함께, 간병인들은 자폐증으로 진단받은 그들의 자녀를 위해 필요한 치료와 연관된 재정적 압박을 걱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지 및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무실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PWDD)이 지원하는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받은 24,000명의 뉴욕주민들의 가정들은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한 Cuomo 주지사와 그의 결정에 대해 저와 함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John B. King, Jr., 주 교육 위원은, “자폐증과의 싸움만으로도 가족들은 힘이 듭니다. 이 가족들은 엄청난 의료비용과 자녀들의 치료 연기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되서는 안됩니다. 조기 및 정확한 진단은 장기적 및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간단히, 해야 옳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새 법안은 그것들 중 하나입니다. 주지사와 입법부는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인 자녀를 둔 수 천명의 뉴욕 부모님들의 거대한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Autism Speaks의 Bob Wright 공동설립자는, “Autism Speaks는 Cuomo 주지사께 자폐증으로 힘들어하는 저희 가족들을 지지해주신 그의 지혜와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및 우리의 옹호자인 Joe Morelle 의원과 Chuck Fuschillo 상원의원과 협력하여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자폐증 보험 개혁을 만들어낸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뉴욕은 제정 개혁을 한 29번째 주가 되어 가족을 우선으로 두는 다수의 주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Autism Speaks의 Mark Roithmayr 회장은, “어떤 뉴욕 가정들은, 이미 불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필요하고 또 그들이 받을만한 치료를 위해 매년 수 만 달러를 본인부담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제정은 이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것 뿐만 아니라, 뉴욕주의 납세자들을 위해 앞으로 6년동안 약 1천 300만 달러의 특수 교육비, Medicaid, 및 사회 복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은 뉴욕인들에게 좋은 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Paul A. Hamlin, MD, 뉴욕시 의학 협회 회장 (Medical Society of the State of New York) 은, “뉴욕시 의학 협회의 모든 의료진들을 대신해서, 이 법안의 서명은 중대한 일입니다. 이것은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 검사,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확장시킬 것입니다. 환자들은 가끔 개별된 가족, 교육, 또는 서비스 플랜에 대해 제공된 규칙 이상으로 필요한 치료들의 중요한 차이와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 Fuschillo 상원의원 및 Morelle 의원에게 이 제정에 대한 그들의 선견지명에 감사드립니다. 이는 자폐인들을 위한 보험 동등 제공으로 진단 및 치료를 더 신속히 처리하여 더 나은 장기적인 건강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Asperger Syndrome and High Functioning Autism Association (AHA) 의 Patricia Schissel, LMSW, 대표인은, “오늘의 서명은 자폐인을 간병하는 뉴욕 가정들에게 굉장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에게 자폐증 진단 및 치료 비용에 대한 보상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가정들은 이제 더 쉽게 자폐증을 발견하고 필요한 치료를 가능한 한 빨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의 통과에 애써주신 Cuomo 주지사와 후원자인 Fuschillo 상원의원과 Morelle 의원께 찬사를 보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Policy & Advocacy,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District II, NYS의 Elie Ward 책임자는, “자폐증으로 진단받은 자녀를 둔 것은, 이미 현재 우리의 경제 상태로 타격을 받고 있는 가정들에게 경제적 어려움과, 만성적으로 아픈 아이를 돌보는 감정적/사회적 도전을 더해지게 됩니다. 이 법안이 요구하는 종류의 건강보험 혜택이 없이는 이러한 가정들은 자주 치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 가혹한 선택의 결과로, 그들의 자녀들은 또래 아이들보다 뒤쳐지고 앞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흡수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에게 자폐증 및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 진단 및 치료비용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Cuomo 주지사는 뉴욕 내에 수 만 명의 자폐인 아이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성장하고 잠재성을 온전히 개발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줄 수 있게 했습니다. 뉴욕 전체의 5000명 이상의 소아과 의사들은 진심으로 Morelle 의원과 Fuschillo 상원의원 및 많은 동료들께 이 법안을 통과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UJA-Federation of New York의 Anita Altman 부경영 책임자는, “오랫동안, 자폐인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들은 자폐증 장애 치료를 위한 본인부담 비용 때문에 몹시 힘들어 왔습니다. 치료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가정의 자녀들은 학업적 및 사회적으로 더 많은 약점들을 갖게 됩니다. 건강보험 제공자들이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가족들의 삶을 바꿀 것이며, 저는 이것의 제정에 서명하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Autism Action Network의 Katie Weisman 총무는, “저의 가족과 저는 이 법안이 마침내 제정에 통과된 것에 안심이 되었고 주지사께서 오늘 이것에 서명한 것에 대해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습니다. 저는 Fuschillo 상원의원과 Morelle 의원께 이 제정을 지지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 법안은 자폐증이 의료상태이지 그저 단순한 정신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저는 치료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직접 봐오고 있습니다. 저의 아이들은 의료적 치료와 심화교육 지원을 통해 크게 성장했습니다. 자폐증에 영향받은

개인 및 가정에게 필사적으로 필요한 치료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의 장기적인 질을 향상하는 것과 같이 중요한 것에 인색할 수 없습니다. 이 새 법안은 사랑하는 이가 자폐증이 있는 가정들의 길을 순조롭게 해 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Susan Hyman, MD, University of Rochester Medical Center 내 Golisano Children's Hospital의 소아과 부교수 겸 신경발달 및 행동적 소아과 과장은, “오늘날의 경제에서, 자녀가 자폐증으로 진단받으면 이미 힘든 가정 경제에 엄청난 재정적 어려움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건강보험 회사들이 이 신경발달 장애의 진단 및 치료비를 보상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적절한 의학적 및 행동적 치료가 뉴욕의 110명 당 1명의 자폐증 아동을 위해 상환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Morelle 의원과 Fuschillo 상원의원께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Stephen Sulkes, MD, Golisano Children's Hospital의 소아과 교수 겸 Strong Center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대표인은,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는 수 천명의 뉴욕인들과 그들의 친구들 및 가족일원들의 삶에 깊은 영향이 있습니다. 오늘, Cuomo 주지사가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에 영향받은 이들에게 보여준 지원은 주정부가 그들의 편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저는 이 법안의 제정에 서명하고, 건강보험 제공자들에게 그 치료 및 진단 비용 보상을 요구함으로써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에 의한 도전을 최소화하는 데 애써주신 주지사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Families Together in New York State의 대표자이자 Board of the Autism Society of the Greater Capital Region의 Paige Pierce 회장은, “저는 뉴욕주가 건강보험 회사들에게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인들의 치료비용 혜택 제공을 요구하는 자폐증 법안 (Autism Bill)을 통과시킨 최근의 주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 법안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포괄적인 조기치료 중요성의 이해를 보여줍니다.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젊은이의 부모로서, 그리고 Timothy's Law Campaign의 공동책임자로서, 저는 과거에 가정들이 직면했던 도전들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 Fuschillo 상원의원, 그리고 Morelle 의원께,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그들의 진보적인 지도력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Autism Society of the Greater Capital Region의 Jan Campito 부회장은, “취임 이후 Cuomo 주지사는 의료 및 그것이 뉴욕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재정적인 영향 개선을 그의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서명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진보적 의료에 대한 그의 헌신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이 새 법안은 그 동안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 치료를 위한 고액 의료비로 인해 엄청난 희생을 해야 했던 우리 아이들과 가정들에게 좋은 소식이며, 저는 애써주신 주지사, Fuschillo 상원의원, 그리고 Morelle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Foundation for Autism Information and Research, Inc. 의 Michael Smith 회장은, “이 법안 서명은 자폐증이 있는 수 만명의 뉴욕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거대한 성취입니다. Cuomo 주지사는, Fuschillo 상원의원 및 Morelle 의원, 그리고 입법부 전체와 협력하여, 건강보험 제공자들이 확실히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 고액의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때문에

가족들을 더이상 고생시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긍정적인 전진이지만 아직 가정들의 전체 보험 혜택을 다루기 위한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폐증 유행병은 주 입법부의 계속되는 최우선 순위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Upstate New York Families for Effective Autism Treatment의 Sarah Milko 회장은, “오늘날의 경제에서, 자녀가 자폐증으로 진단받으면 이미 힘든 가정 경제에 엄청난 재정적 어려움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선택만이 주어진다면, 그 자녀들은 또래에 비해 더 많이 뒤쳐지게 됩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에게 장애의 진단 및 치료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함으로써,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수 만명의 자폐증 아이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Morelle 의원과 Fuschillo 상원의원께서 이 법안의 제정 통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

추가 뉴스는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